

젊음 하나로 농촌을 개척하는 농부들 ... '참 좋은 농부' 김병천 · 김종권 · 한효섭 · 안종식씨.

# 서울·경기 출신 젊은이 4명 운봉리서 제2의 인생

서울과 경기도 지역 출신의 30~40대 젊은이들이 고성지역으로 이주해 농사를 지으며 귀농인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 화제다.

경기도 동탄시에서 생활하던 김종권씨(36세)는 2010년 토성면 운봉리 딱바우 골짜기 2천평의 면적에 블루베리 농장을 조성, 2천여주의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있다.

'참 좋은 농부'의 농장주인 김씨는 처음에는 시설재배를 했으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지재배를 시도해 정성을 다한 결과 마침내 성공했다. 현재는 가족들과 함께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김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농장을 넓혀 표고버섯재배를 시작했다. 과거의 참나무 원목재배방식을 벗어나 비닐하우스 120평 6

동을 짓고, 햇볕을 완전히 차단해 온도와 습도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표고버섯재배를 하고 있다.

2011년 9월부터 시작해 지금은 재배기술에 성공해 주 2회 100kg의 표고버섯을 생산하고 있다.

'참 좋은 농부' 농장에는 김씨 외에도 경기도 용인시 출신 김병천(42세), 서울 천호동 출신 한효섭씨(34세), 경기도 고양시 출신 한종식씨(34세)가 함께 일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동고동락을 하며 현장에서 실무경험을 익히고 있는 '참 좋은 농부'는 활기에 차 있고, 농촌으로 돌아오려는 귀농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연락처 : 635-1426 / 휴대폰 : 010-9949-1426〉

백옥식 시민기자



토성면 운봉리 '참 좋은 농부' 농장에서 표고버섯 농사를 지으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젊은이들.

## 대통령표창 수상 민주평통 김승익 간사위원

### “패기 있는 고성 위한 머슴되겠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고성군협의회(회장 윤금열) 김승익 간사위원(42세, 사진)이 지난 22일 횡성군소재 성우리조트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김승익 간사위원은 민주평통 고성군협의회에서 2007년 7월부터 현재까지 13기, 14기, 15기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면서, 지역 내 통일 활동사업 활성화에 적극참여하고 통일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확고하게 하는데 공헌하고 있다.

14기, 15기 협의회에서는 간사직을 수행하면서 지역내 다문화가정 돕기, 관내 환경정화활동, 학교보건위생과 학습 환경보호 등의 지역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타 기관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민주평통 고성군협의회 위상정립에도 매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승익 간사위원은 고성청년회의소 28대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고성군번영회 사무국장, 고성경찰서 경발위 사무국장, 고성군 체육회이사, 고성교육지원청 운영위원회 사무



국장, 고성명태축제위원회 사무국장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참 일꾼으로 알려져 있다.

김승익 간사위원은 “저보다도 드러나지 않은 훌륭한 숨은 일꾼들이 많은데 이렇게 수상하게 돼 겸연쩍다”며 “겸손한 자세로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젊은이로서 패기 있는 고성을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머슴이 되겠다”고 했다.

또 “22세부터 현재까지 20년 동안 고향을 지키며 지역사회에 크고 작은 일에 몸을 담고 있는데,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경기침체로 고성군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지역 현안에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를 통해 고성군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의 참신한 젊은 일꾼들이 보다 많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거진읍에서 슈퍼와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승익 간사위원은 부인 손기숙(42세)과 2녀를 두고 있다. 원광연 기자

## 지체장애인협회 고성군지회 김명철 지회장

### 사회복지사 3급자격증 취득

강원도 지체장애인협회 고성군지회 김명철 지회장(사진)이 2011년도 서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 사회복지사 양성과정 24주간 교육과정을 무사히 마쳐 지난해 12월 21일 수료식과 함께 사회복지사 3급자격증을 취득했다.

김명철 지회장은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우수한 성적으로 상장을 수여받아 장애인들의 모범이 됐다.

김명철 지회장은 “24주간의 소중한 시간을 통해 진정한 사회복지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터득하게 됐다”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접근해 사회에서 소외감 없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 예그리나마을 고성군에 성금 기탁



토성면 백촌리 굴삭다리 예그리나마을 주민들이 지난해 12월 26일 50만원의 성금을 고성군에 기탁했다.

모두 다섯 세대가 살고 있는 이 마을 주민들은 3년전부터 1세대당 10만원씩 총 50만원의 성금을 마련해 매년 겨울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예그리나 마을 주민 장목순씨(46세), 오른쪽은 장근태씨(44세).

최광호 기자